



GP Indonesia 김 화 수 선교사

☞. Sariwangi Asri X, No. 8, Kompleks Sariwangi Asri, Kel.Sariwangi,
Kec.Parongpong Bandung Barat, Indonesia

//Tel: +62-22-8202-5858//hp)62-812-2194676//E-Mail: estherhsk@gmail.com

살림 ~

오늘따라 텅빈 길거리와 잿빛 하늘, 한바탕 쏟아진 소나기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시원스런 바람 불어와 더위를 잊게 하는 상쾌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태양 빛에 대지가 타오르는 화려하고 눈부신 날은 아니어도 마음을 열고 다가와 속삭이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한 구석에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기근, 내전 소식을 들으며 이 요동치는 세상의 틈바구니 저편에서 한없는 고통가운데 처해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주를 아직 만나지 못한 채로 이름없이 의미와 명분도 없이 하나뿐인 생명이 속절없이 스러져 가는 현실을 떠올리며 빛진 마음으로 함께 아파합니다. 어서 속히 그들도 제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을 주시길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며 머나 먼 순례자의 길에 믿음의 친구 되어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귀한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 그리움을 전하며 이곳 소식과 함께 저의 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

한달 동안 진행되는 회교도들의 라마단 금식이 4월 21일까지 끝나고 지난 토요일부터 이돌피뚜리”라는 그들의 최대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서 인지 붐비던 도시의 거리들이 많이 헐렁하고 한가해진 분위기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가족끼리 모여 명절을 즐기고 각기 이웃들과 함께 인사를 주고 받는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관공서 및 은행 등이 업무를 개시하였고, 학교나 회사 등 아직도 여러 분야의 일터에서는 휴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절의 끝자락에 서서 이 땅을 바라보며 생명이신 주께서 이곳 인도네시아에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속히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많은 젊은이들과 이곳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얘기를 합니다. 현재 대통령으로 섬기고 있는 조코위가 대통령직을 연임하며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여러 면에서 발전을 하였고 국격도 많이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관공서의 행정적 절차도 많이 간소화하여 저희와 같이 종교성 및 노동청, 사회복지부, 이민국등 행정기관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대선에서도 정직하고 국가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집 ~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보호아래 우리 은혜의 집 공동체 식구들은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솔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아이들과의 삶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실감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선교 대회 참석차 은혜의 집을 비운 동안 아이들이 기특하게도 자기가 맡은 일을 차분히 감당하며 저의 빈 자리를 잘 메꾸어 주었고, 간혹 말썽을 부린 아이들도 있고 다른 문제도 발생했지만 나름대로 잘 해결해 나가며 공동체 안에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저녁 드리는 예배와 찬양,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음악 악기 연주 및 렛슨을 같이 하면서 정서적으로 성장해 가며 친구들과 맺어지는 친밀한 사랑의 줄, 어린 동생들의 방 청소 및 옷을 세탁해 주며 말씀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은혜의 집 및 유치원의 집수리와 은혜의 집 모든 살림을 함께 꾸려 나가며 배우는 협력 정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손에 저와 아이들을 맡기며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번 6월 학기를 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들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점차 준비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동 ~ ^^ ... 제가 선교대회 참석차 은혜의 집을 잠시 비운 사이, 베이비 엘리스와 초등학생들을 돌보기 위해 은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며 믿음 생활을 시작한 아주머니라는 다르게 그분의 남편과 대부분의 가족들은 아직도 회교도였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그 남편이 미친듯이 날뛰며 발작을 일으키고 부인을 위협하여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남겨둔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대회를 이틀 남겨두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갑자기 너무나 당황 되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베이비 엘리스와 어린 초등학생들은 누가 돌보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 잠시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의 집 대학생 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엘리스는 누가 돌보니? 너희 중에 누가 학교를 가지 않고 엘리스를 돌보는거니?” “네? 아니 우리 모두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헤르만이 애기 띠를 사용해 엘리스를 가슴에 안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Daycare 에 맡기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 공부가 끝나면 오후 5시에 다시 엘리스를 데리고 옵니다” 라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대답하는 대학생아이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당황했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베이비를 들쳐 업거나 가슴에 안고, 오토바이를 타고 Daycare 에 맡기러 가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며 마음에 스며드는 대견함과 고마움이 겹쳐져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헤르만의 섬김은 제가 반동에 다시 돌아오기 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_^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리베는, 저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잠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대학원 공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개인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도 열렸는데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 또한 틈틈이 은혜의 집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지난 학기에 세무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에 잘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것 감사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미니 콘서트 준비... 반동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도움으로 작은 콘서트를 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수방 지역에서 있을 콘서트에서 바이올린과 플룻, 색소폰과 트럼펫등을 연주하게 되는데 잘 준비한 만큼 멋진 연주를 하여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지도해 준 오케스트라 멤버들에게도 기쁨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은혜 유치원 ~

이번 6월에 은혜 유치원 원생들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 및 종일 반에 출석하여 그동안 함께 한 시간이 많은 그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네요. 졸업식 준비를 잘하고 주님께서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계속하여 주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유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전히 원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다가오는 7월에는 은혜 유치원에 새로운 아이들이 더 많이 입학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섬기던 유치원 교사가 다른 주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이번 학기를 끝으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유치원 교육 경험이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지인 교회와 협력사역 ~

이곳 현지 교단 GGP 산하 오래된 시골 교회들의 수리 및 재건축을 돕는 프로젝트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예배 처소인 예배당을 수리하거나 재건축 할 수 있는 필요들을 채워 주시어 감사한 마음으로 돕고 있습니다. 여성도들까지 나와서 예배당을 짓는데 노동으로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었으며 주님께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골 정글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부자바 가룻 지역의 사역자 이삭목사님 부부는 여전히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으며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복음 전파와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가운데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안에서 축복합니다.,

선교 대회 참석~

지난 2월 중순, 토론토 장로교회 노회 주최 선교 대회에 초청되어 선교 보고 및 말씀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주어져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큰 은혜와 새 힘을 부어 주셨고, 새롭고 귀한 좋은 만남들을 가지며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토 장로교회 노회 선교대회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큰 사랑으로 격려와 기쁨을 주신 평강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리워하던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를 방문하여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음도 더 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경유하여 돌아오며 96세된 노년의 어머니를 뵈고 잠시나마 같이 지낼 수 있어 정말 기쁘고 감사했고, 파송교회인 부천삼락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예뜨랑 교회와 몇몇 분께 인사 드린 후, 선교지로 빨리 돌아와야 하는 일정으로 인해 오래 머물 수 없어 다 찾아 뵈고 인사 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안고 인니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섬겨 주신 여러분 한분한분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오며 가슴 가득 사랑과 기쁨이 출렁였습니다. 사랑의 큰 빛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저에게 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작은 소망과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과 사역의 순간들, 그리고 까마득히 저 멀리 보이던 아버지 집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귀한 동역자님과 함께 걷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안에서 감사와 살롬을 전합니다. 늘 승리의 삶 누리소서 ~

2023년 4월 25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김화수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와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2. **. 이번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명의 은혜의 집 아이들의 발걸음을 지도해주시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도록.

**. 은혜 유치원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충성 되고 신실한 실력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도록, 은혜 유치원에 새로운 원생들을 보내 주시도록.

3. 은혜의 집 아이들이 예배와 기도회 및 공동체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개개인이 회심의 역사가 있도록.
삶과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며 어떤 환경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사춘기시절을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지나가도록.

-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영적 싸움에서 능 승리하며 사회생활과 직장, 하나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 아이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 악기 연주를 포함해 모든 일에 진보를 이루며 좋은 열매를 맺도록.
- 은혜의 집을 위해 충성되고 신실한 소명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4. 은혜의 집 땅 구입 과정에 발생한 민사재판이 1년여간 지속된 대법원 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며 제가 지불한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염려했던 대로 인니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인 땅 주인의 사위가 돈을 쓰거나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심과 2심에서 이긴 민사건은 다른 큰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질 수 없는 재판이었다 하네요. 저희 은혜의 집을 도와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재 심의”를 신청하는 길 밖에 없어, 정식으로 대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이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 외에 아무 것도 없네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불의를 파하고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5. 주께서 주신 물질과 생필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다족 사람들과 예배 처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잘 나눌 수 있도록...

6. 영육간 회복과 당뇨 증상 및 몸의 연약한 부분등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도록.

7. 혼자 계시는 96세의 연로하신 어머니가 늘 강건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 및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생을 보내시도록.